깊고 미묘하고 큰 공덕 덩어리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㊱ 아난과 제석에게 당부하다

〈원문〉 그때 세존께서는 기원의 숲으로 돌아오셔서 장로 아난(阿難)에게 일러주고, 또 제석천왕을 생각하였다. 제석은 여러 권속들을 데리고 홀연히 부처님 앞에 이르렀다. 그때 세존께서는 천제석과 장로 아난에게 이 경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제석에게 당부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잘 외우라. 교시가(憍尸迦)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항하의 모래알 같이 많은 겁 동안에 보리행(菩提行)을 닦으면서 6바라밀을 행하고, 다른 선남자와 선여인은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고 나아가 또 몸에 지닌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 사람의 복보다 많을 터인데, 하물며 여러 사람에게 자세히 설하여 주는 공덕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그러므로 교시가여, 이 경을 읽어 외우고 삼십삼천(三十三天)을 위하여 자세히 설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설해 주도록 하라."

이때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일체 성문이나 연각들로는 끝까지 관찰하거나 알고 볼 수 없느니라. 교시가여,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며 큰 공덕 덩어리이니라. 이제 너에게 그 이름을 간략히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그때 제석천왕과 장로 아난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받아 지니겠습니다."

〈강설〉 기원정사로 돌아온 부처님이 아난과 제석(교시가)에게 〈승만경〉 수지를 당부하는 장면이다. 승만 부인이 설한 이 경이 어떤 경인지 이름을 들어가며 전체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설해 주시고 이 경을 사부대중에게 유통시킬 것을 당부한 것이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을 '유통분'이라 한다. 모든 경전을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의 삼분으로 나누어 경전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 온 관례가 있다. 부처님과 승만 부인 사이에만 대화가 전개되다가 경의 말미인 '유통분'에 와서 아난이 등장하는 것은 아난이 유통교해(流通敎海)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아난을 경가(經家)라고 칭하며,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제자로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부처님 열반 후 경전을 결집할 때 송출(誦出)해 내었다.

제석은 힌두교의 신으로서 고대인도에서는 인드라(Indra)라고 불렀으며, 불교에 들어온 이후 제석천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설에는 제석천은 원래 마가다국(Magadha)의 브라만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보시(布施) 등의 공덕을 닦음으로써 도리천에 태어나 삼십삼천(三十三天)을 통솔하는 천주가 되었다고 한다. 도리천은 사방으로 8천이 나누어져 있고 중앙에 선견천(善見天)이 있어 합하여 33천이 되므로 때로는 33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이 도리천에 올라가 9순(九旬)을 머물며 생모였던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경전이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이다. 제석은 도리천의 선견천에 있는 천궁 제석궁에 머물면서 불교의 호법주신(護法主神)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때로는 아수라와 전쟁을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승만경〉을 부처님은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이라고 이어 말한다. 경전의 격을 높여서 말한 것이다. 이는 이 경이 대승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경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을 많이 연구해 왔으며, 대승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 놓은 점이 부각되고 있다. 승만 부인이라는 한 우바이를 통하여 대승적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할 수 있는 경이다. 거듭 말하자면 여래장사상과 구경 일승의 이치는 여래만이 알고 있는 매우 심오하고 미묘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 일불승의 사상을 천명해 놓은 대승불교의 비중 높은 경전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생, 삼계·사생·육도 윤회는 존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㊾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윤회하는 생명', '유정(有情)'

인도의 역경가 구마라즙은 '중생(衆生)'을 '윤회하는 생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당나라 역경가 현장 스님은 중생의 의미를 '유정(有情)'이라 표현했다. 유정은 원래 불교 유식학(唯識學)에 나오는 용어이다. 당시 유식학에서는 '다시 태어나 죽어가는 윤회의 주체'로서 범어 산스크리트어 '보특가라(Pudgala,補特伽羅)'를 상정하고 있었는데 이 보특가라의 뜻이 '중생'이다.

중생의 의미를 가진 '보특가라'를 '아뢰야식'과 대비해서 윤회의 주체로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중생'이라는 용어가 윤회의 주체로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유정'이라고 번역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니라 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전래될 때 유교나 도교를 신앙하던 이들에 의해 경전이 최초 한역(漢譯)되는 과정에서 '윤회하는 생명'을 '중생'이라 표기했던 것이다.

△중생의 광의적 의미는 삼계·사생·육도 윤회하는 중생 일체를 말한다.

광의적 의미에서 중생은 삼계(三界)에 사생(四生)으로 육도(六道) 윤회하는 우주법계 속의 일체중생 모두를 일컫는다. 삼계(三界)란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말하며, 사생(四生)은 네 가지 출생방식을 일컫는다. 어미의 배를 빌어서 태어나는 태생(胎生), 알로 태어나는 난생(卵生), 물기 있는 습한 땅에서 태어나는 습생(濕生), 자연 변화되어 태어나는 화생(化生), 이 윤회하는 중생의 네 가지 모습인 사생(四生)을 '태란습화(胎卵濕化)'라고 한다.

사람은 윤회하는 생명을 얻을 때 그 모습을 갖고 나오는 인연법이 바로 '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처럼 모두 태(胎)에 의해서 태어났다.

육도(六道)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등의 여섯 가지 세계를 일컫는다. 그래서 이 모두를 총칭해서 삼계, 사생, 육도의 일체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중생이라고 하면 미물에서부터 사람까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이란 존재에 국한해서 설명한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유정(有情)·무정(無情)이라고 표현할 때 유정은 사람을 의미하고 무정은 사람이 아닌 일체 생물과 식물 등을 포함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중생은 '윤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중생이 윤회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중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 세계를 '기세간[器世間]'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기세간은 우주법계이다. 인간들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바로 우주법계 가운데 지구이다. 이 우주법계를 의지해서 생명을 가지고 윤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 있는 일체 존재를 일러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일러 중생이라 말할 때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윤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중생들은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업력에 의해서 윤회 속에 나타난다. 업력의 과보에 이끌리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이는 중생이 아닌 것이다. 다른 말로 업력에 끌려 다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은 생명을 가지고 업력에 이끌려 중생 세계에 윤회하며 생로병사를 한다. 만약 중생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생로병사의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㊱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2

오온에 대한 포기가 완전한 자각

라훌라는 저녁 무렵에 홀로 명상하다가 일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가서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 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 쪽으로 앉아서 라훌라는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호흡새김을 닦고 어떻게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공덕이 있습니까?"

"짐이 오늘까지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텅 비어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모릅니다[不識]."

양무제와 달마 스님이 첫 만남에서 나눈 문답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실제로 있었던 문답인지의 논쟁은 버리고, 이 문답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두 분의 이름을 빼고 보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황제와 최고의 선승이라는 것이다. 최고의 선승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공덕이 없다'고 말해버린다. 아마 황제인 양무제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스님이 "당신은 거지가 될 것이요"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말이다. 이때 양무제의 나[我]와 달마 스님의 '나[無]'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달마 스님은 양무제에게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일러 주었다. 하지만 양무제가 '나[我]'로 들어버린 것이다. '나[無]'로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수행이 어려운 것은 '나[無]'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것이지 어떤 행위나 지식의 축적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나[我]를 가지고 '나[無]'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모를 뿐이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없다. 이것에 따라 수행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수행은 수행이 되지 않고, 공덕과 과보를 생각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나[無]', 이것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나[無]'를 정의하고, 그 정의한 것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처음 정의한 것을 위배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정의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정의는 해놓고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절망할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에는 좋아서 흥분할 것이 틀림없다. 절망과 흥분은 사실을 인지하는 데 많은 장애를 만든다.

라훌라도 부처님께 수행의 과보와 공덕을 묻는다.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그 깊은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는가. 뭇 삶은 삶과 수행에서 바라는 마음과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지금 나름대로 절제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물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 당연하다는 한 생각으로 아주 많은 생을 돌고 돌아왔다고는 헤아리지 못한다. 지금이라는 곳에서 지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일어났었다, 나에게 일어났다,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의 삶에서 바라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다. 그 바라는 마음이 삶이다. 그러나 수행은 그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지와 그 바라는 자에 대한 관찰인 것이다. 바라는 마음은 부족함에서 나온다. 그런데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이것저것 끌어 모아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잠시의 불안만 해소할 뿐, 완전히 만족한 마음은 없다. 이것이 삶과 수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無]'를 알기 위해서는 나[我]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다. '나'는 물질이 아니다. '나'는 느낌이 아니다. '나'는 지각이 아니다. '나'는 형성이 아니다. '나'는 의식이 아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완전한 자각이다. 이것 이외에 알아야 할 것은 없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